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19~22

서양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영혼·정신·의식·마음 등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다. 몸을 종속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와 달리 몸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푸코와 ㉠ 메를로퐁티가 그들이다.

우리는 지하철에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앉아 있는 자세만 보아도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세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푸코는 구성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규율화되는지를 ㉡ ‘몸-권력’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푸코는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된다고 보았다. 푸코에 따르면 학교, 군대 등의 근대적인 정치·사회 조직이 통제된 일람표를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반복적인 훈육을 통해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체화시킨다. 개인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규정된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되고, 이러한 규제는 몸에 각인되며 몸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지하철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자세 차이도 이러한 정치·사회적 권력의 요구가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체화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규율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학자는 메를로퐁티이다. 그는 ㉢ ‘몸-주체’의 개념을 제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메를로퐁티는 몸과 정신은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에의 존재’로서의 우리는 세계에서 의도를 가지고 세계와 관계 맺으며 살고 있는 몸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인 세계에서 삶을 전개하기 위해 습관을 형성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습관을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행위, 즉 실존적 행위로 본 그는 인간의 습관은 사회성 및 역사성을 띤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계에의 존재’라고 말할 때, 이 세계는 우리의 물리적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까지 포함하는 세계, 인간적인 세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존재는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로 그 세계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생산해 낸다고 보았다.

몸을 행위의 주체로 파악하여,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입장은 서로 통하지만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우선 푸코는 정치·사회적 권력에 입각하여 몸과 행위를 이해하는 데 비해, 메를로퐁티는 실존성에 입각하여 몸과 행위를 이해한다. 둘째, 푸코는 몸의 불안정성과 변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메를로퐁티는 몸-주체가 습관으로부터 안정성을 끌어낸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푸코에 의하면 인간에게 안정적인 것은 없으며 규율이 변화하는 시기에 인간의 몸은, 몸을 파헤치고 분해하며 재조립하는 권력 장치 속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변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몸은 행위를 통해 세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가 습관화되면서 안정성을 얻는다고 보았다.

1.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 ②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기 위해
- ③ 새로운 이론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 ④ 상식적인 개념을 제시한 후 그것과 대립되는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
- ⑤ 어떤 학자가 주장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세계를 긍정적으로, ㉡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 ② ㉠은 외부와 몸의 관계를 우연적인 것으로, ㉡은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
- ③ ㉠은 세계에 반응하는 주체의 의도에, ㉡은 세계에 의해 변화된 결과에 주목한다.
- ④ ㉠은 인간을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로, ㉡은 인간을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로 보는 관점이다.
- ⑤ ㉠은 규제에 의해 몸이 규율화되는 과정에, ㉡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주목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고등학생 A군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타셨다. A군은 학교에서 배운 경로효친 사상이 생각나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다.
- 국제면허증이 있는 회사원 B씨는 지난 달 일본으로 출장을 가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하였다. 일본의 차량 진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라는 것을 잊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 차선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 ① ‘푸코’는 A군이 자리를 양보한 것을 세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행동이라 보겠군.
- ② ‘푸코’는 B씨가 사고 낼 뻔한 것을 몸이 세계와 관계 맺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군.
- ③ ‘메를로퐁티’는 A군의 행동에 대해 정치적 의도와 관련 있는 행동이라 여기겠군.
- ④ ‘메를로퐁티’는 A군의 행동 이유를 몸에 각인된 규제가 몸을 통해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겠군.
- ⑤ ‘메를로퐁티’는 B씨가 사고 낼 뻔한 것을 기준에 형성했던 습관이 달라진 환경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4. ㉠의 입장에서 <보기>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 <보 기> —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체는 정신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만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런 점에서 신체는 단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

- ① 인간 존재를 정신과 신체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까?
- ②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아닐까?
- ③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적인 관심은 몸을 초월한 의식 세계이어야 하지 않을까?
- ④ 정신은 신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까?
- ⑤ 신체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을 신체가 담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닐까?

6.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09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22번

공동체주의에 있어 공동선은 개인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이다. 주로 이러한 공동선은 공동체의 전통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구조를 보호할 의무는 이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선 중의 하나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공동선에 비추어 자신들의 선호의 경중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권리 중심의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선이란 결국 동등하게 간주된 개인의 선호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공동선보다는 공공선의 개념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자유주의에서 이러한 개인의 선호가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수밖에 없다. 롤즈는 정치적 구성주의를 통해 공공선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정한 합의의 산물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실천이성과 합당성에 기초하여 특정의 인간관과 사회관을 이 용함으로써 정치적 정의원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구성주의는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사회가 합의의 정치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서구 자유주의 사회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롤즈가 상정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신념을 달리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선을 직관적으로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공공선의 형성은 결국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것을 합의할 때에만 가능하며, 그 합의의 내용이 공공선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공공선은 시민들의 공적 이성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신념체계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기존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공동선이 개인의 선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개인의 자율성은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공동선에 비추어 개인 선호 간의 경중이 가려지는 현상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선을 사회 내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구성원 전체에 관계되는 공공선은 결국 당사자의 합의의 산물로 이해한다. 기실 공동체주의자들도 공동선이 사회 내의 구성원의 담론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때 공동선 또는 공공선을 관련 당사자의 합의의 대상이나 구성의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성 있는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①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자유민주사회에서 공공선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공정한 합의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 ②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선이 개인의 선호에 상관없이 사회의 전통 안에 이미 각인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도 공동선이 사회 구성원들의 담론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 ③ 공동체주의자들에게는 공동선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반면, 권리 중심의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공동선보다는 공공선의 개념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 ④ 정치적 구성주의는 정치적인 정의의 원칙들을 구성절차의 산물로 표현하는데, 그 구성절차는 본질적으로 실천이성, 전통적 가치, 그리고 개인의 선호 등에 기초하고 있다.
- ⑤ 자유주의자들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신념을 달리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선을 직관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구성원 전체에 관계되는 공공선은 결국 당사자의 합의의 산물로 이해된다.